

완도, 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 발판 마련

국립난대수목원·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

완도군이 해양, 문화, 역사 등 고유 문화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하면서 해양관광 거점도시 완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3456ha)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난대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비 1475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이 현 완도수목원 일대에 조성된다.

국립난대수목원에는 전시·관람지구, 서비스·교육지구, 보전지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과 모노레일 등이 들어선다.

지난 27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조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정바다를 보유한 완도군에는 국립해양수산물관도 들어선다.

해양수산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인근 4만3000㎡ 부지에 국비 1245억원을 투입해 전시, 연구, 교육 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거

쳐 2024년 착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 법화사지 복원 재건 등 '장보고 성역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고급 덕다리 일원에 삼도수군 통제영·봉수대 복원, 역사 공원길 등을 조성하는 '이순신 장군 역사 공원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관광 트랜드로 떠오른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 주민 주도형 '섬 관광청'을 운영하고 '완도 섬 비엔날레'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건설'과 '다도해 해상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체도권은 체험관광, 등부권은 힐링관광, 서부권은 문화관광, 청산권은 생태관광으로 권역별 테마가 있는 관광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비교우위의 해양·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 500만 관광객이 찾는 완도를 만들 것이다"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해 완도군이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왕새우' 특허청 상표등록

신안군은 지역의 명물 신안왕새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신안왕새우는 전국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연간 550억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수산물이자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민 먹거리이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친환경 새우 양식 생산자들이 '신안왕새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리가 확보됐다. 또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소득향상과 경영안정화 등 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안군은 '신안왕새우' 상표를 해마다 개최되는 '섬 왕새우축제'와 포장재 등에 사용해 신안군이 왕새우 주산지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 신안에서 생산되는 왕새우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영암, 공공비축미 2만4229톤 매입 완료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 대비 2배 이상 증가

영암군이 28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0월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에 걸쳐 진행한 읍면 수매현장에서의 본격적인 건조벼 매입까지 급년 군의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매입량은 60만 5714포대(40kg 기준), 총 2만 4229톤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만 466톤(26만1647포대) 대비 2.3배 증가한 물량이다.

올해 군은 당초 매입 계획량인 2만 4243톤 대비 99.9%의 매입률을 달성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수매품질 확대 요청에 따라 '일미', '새청무'에

이어 '강대천' 품종을 추가, 총 3개 품종으로 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특등비율이 지난해 대비 2.3% 증가하는 등 전체 매입량의 98%가 최우수 품질인 1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1등급기준 지난해 74,300원에서 13%이상 하락된 64,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연내에 40kg포대당 3만원씩 지급된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최종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암=김영두 기자

강진군 보건소, 내년 걷기 챌린지 추진

달성 시 '상품권 받기'·'기부하기' 선택 가능

강진군보건소는 주민 걷기 생활화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이용한 걷기 챌린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매월 진행되는 걷기 챌린지는 20일 동안 기간 내 누적 걸음 수 14만보를 달성하면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강진군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워크온에 가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까지는 챌린지 성공 시 강진사랑 상품권 1만 원 받기만 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챌린지부터는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 수령', '상품권 5천 원 수령 및 5천 원 기부', '1만원 전액 기부하기'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기부를 선택할 경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본인 이름으로 기부금이 전달된다. 이 기부금은 강진군 관내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챌린지 참가를 원하는 경우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강진군 공식 커뮤니티 가입, 챌린지 화면에서 '참가하기'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가입 시 '워크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확인 후 반드시 '동의'에 체크해야 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매월 동일한 기간 걷기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벼운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무안,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무안군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적 및 업무 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신규수급자 발굴률 및 노력도 ▲기초생활보장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 ▲긴급복지 집행 실적 및 신속처리율 등이다.

군은 신규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 수급률을 높이고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예산을 적정 지급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행복e음을 우수하게 운영함을 인정 받았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목포, 내년 특별교부세 83억원 확보 '역대 최고액'

하당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공사 등 사업 추진

목포시가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연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추가해 민선8기 출범 후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하당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공사 3억원 ▲상동 광신프로그램 아파트 후면 도로 절개지 보강공사 5억원 ▲평화광장 데크 보수·보강 3억원 ▲하당고

교 자동차역수 분사장치 2억원 등이다.

이로써 시가 올해 확보한 2023년도 특별교부세는 ▲목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사업 10억원 등을 포함해 25건 83억원이다. 이는 시의 특별교부세 역대 최고액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정기적인 특별교부세

배분이 끝난 상황에서도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끝까지 힘써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취임 직후부터 지속돼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특별교부세 교부를 꾸준히 건의하는 한편 국민회의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의원 및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올해 하반기에만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남 옥천에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된다

군, ㈜에이치엠지힐스와 투자협약 체결

해남군은 ㈜에이치엠지힐스와 골프장 조성 시설투자 1140억 원, 고용인원 130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에이치엠지힐스가 오는 2025년까지 옥천면 용동리 일원 약 200만㎡ 부지에 18홀 대중제 골프장 신설과 골프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클럽하우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골프텔은 전지훈련 시에는 선수들과 관계자들 숙박시설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기업에서는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생산물 구매,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며, 골프장 조성으로 주민 건강은 물론 세수 확대와



골프인구 유입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기업 이용 등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